

사회

# 고종석 '화학적 거세' 청구

## 광주지검 성범죄자 3명 대상, 제도 적극 활용 추진

나주 7세 여아 성폭행 사건으로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검찰이 '화학적 거세'인 성충동 약물 치료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전강진)는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종석(23)에 대해 전자위치 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화학적 거세인 성충동 약물치료를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최근 검찰이 화학적 거세를 위해 광주보호관찰소에 광주치료감호소에 조사나 정신감정을 의뢰한 성범죄자는 고종석을 포함해 모두 3명에 이른다.

성범죄 전과가 없는 고종석에 대해 검찰이 신경정신과 전문의, 대검찰청

진술분석 전문가, 범죄심리학 전공 교수 등을 동원, 면담조사·심리검사 등을 통해 화학적 거세 청구에 필요한 사전조사가 나선 것이다.

전자발찌 부착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화학적 거세는 성도착증이 있는지에 따라 실시 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은 이 같은 심층조사를 위해 지난 7일 광주보호관찰소에 고종석을 상대로 전자위치추적장치 및 화학적 거세 청구 전 조사를 의뢰하고, 1차 구속기간(10일)이 만료된 이날 구속기간을 1차례 연장했다.

이창재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인 만큼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은 물론 도대체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된 배

경이 뭔지 심층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광주지검은 이날 들어 고종석과 함께 성도착증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 1명에 대해서도 같은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동종전과가 있으면서 남아 어린이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가 구속된 남성에 대해서는 공추치료

감호소에 화학적 거세를 위한 정신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검의 전자위치 추적장치를 위 한 청구 전 조사 의뢰는 99건에 달했지만, 화학적 거세를 위한 조사 의뢰는 1건도 없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까지 확대 확정

정부는 13일 현재 16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성충동 약물치료 적용 범위를 19세 미만의 모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또 성인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를 최초 시행일인 2011년 4월 16일부터 3년 이내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폭력 범죄자에게까지 소급 적용해 법원의 결정을 거쳐 공개하기로 했다. 이 경우 소급적용 대상은 2817명이다.

## 약물로 성충동 억제... 범죄 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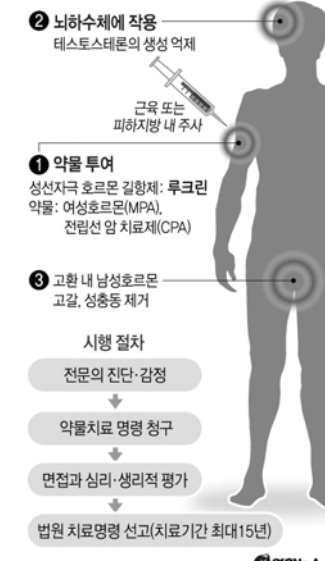
### ■ 화학적 거세란

재범 가능성이 높고 성도착증이 있는 19세 미만 상대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는 약물 투여를 통해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량을 줄이는 치료법이다.

성충동 약물치료라고도 하며, 법무부가 지정 고시한 약물은 고세렐린, 루프플라이드, 트립토펀린, CPA(사이프로테론), MPA(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로 모두 5가지다. 경우에 따라 한 달에 한번, 혹은 세 달에 한 번 피하지방층(배, 엉덩이 등)에 주사하며 1회 28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법무부는 약물치료, 각종 호르몬 수치 및 부작용 검사, 심리치료 등을 받아야 하는 화학적 거세 대상 성범죄자 1인당 1년에 약 500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청구해 법원의 명령

### ‘화학적 거세’ 시행 과정



에 따라 출소후에 치료하지만 복역 중 약물투입도 가능하다. 치료 시기(최장 15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검사가 치료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나원침 (8648) 김장두



# 교사들도 '보험사기'

## 방학중 허위입원 병원비 챙긴 광주·전남북 8명 적발

방학기간에 허위입원해 병원비를 챙긴 교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에 사기 혐의로 입건된 14명 가운데 광주·전남·전북지역 교사가 8명에 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허위로 입원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광주도 고교 교사 주모(42)씨 등 14명과 이들을 도와준 보험설계사 정모(4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주씨는 5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지난해부터 피로 등의 이유로 방학기간에 입원한 것처럼 해 690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윤모(여·33)씨는 수업 중 잦은 철관 관서 등으로 목과 어깨가 결린다는 이유로 2년간 방학기간(110일)에 입원한 것처럼 꾸며 41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교사들의 허위 입원을 알고도 묵인해 부당 요양급여금을 챙긴 혐의(사기·사기방조)로 의사 최모(47)씨 등 14명도 함께 붙잡혔다.

이들 교사는 2010년 2월부터 2년여간 3~16개의 상해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방학기간을 이용해 근육통 등을 이유로 거짓 입원, 모두 2억3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교사들은 서류상으로는 입원한 뒤 같은 시간 학교에서 수업을 하거나 여행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교사 중 중·고·공립 교사가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립학교 교사가 4명, 기간제 교사가 3명이었다.

한편 보험설계사 정씨는 실적을 위해 허위 입원을 권유하고 보험가입을 독려했으며 의사들은 환자가 병실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를 묵인해 약 900만원의 요양급여를 챙겼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떡 메치기 재밌어요”

13일 광주시 북구 건국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추석맞이 다문화가족과 정 나누기 행사'에 참가한 이주여성들이 떡 메치기를 구경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이호균 전 도의장 징역 2년

### 공사비 과다 등 횡령 혐의

### 신입생 유치 수단도 지급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문방진)는 13일 목포과학대학 학장으로 재직하면서 국고보조금과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전라남도의회 의장 이호균(50)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했다.

이 전 의장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국고보조금 횡령사실을 불렀고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대학 전 산학협력단장과 전 입학관리처장 등 4명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이 전 의장은 산학협력단 직원들을 지시 및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계약에서 인출된 수표 중 일부를 자신의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업무에 회신나 주간업무보고 등에도 상호 합의가 있었다는 문구가 있었던 점 등에서 산학협력단장을 통해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거나 이를 공모했다고 인정하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장 등은 또 수년간 목포지역 고등학교 3학년 교사들에게 1인당 5만~7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면서 신임상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 불법 문자 무더기 발송

### 50대 교수 벌금 80만원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사립대 교수 장모(여·55)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는 제19대 총선에서 광주 서구 갑에 출마표를 던졌던 민주통합당 장모 예비후보자의 친동생으로, 불법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이대엽 전 성남시장 징역 4년 확정

○대법원은 13일 경기도 성남시 예산을 횡령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영화배우 출신 이대엽(76) 전 성남시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성남시 예산 2억5900여만원을 횡령하고 판교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75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재판부는 "이씨는 직무와 관련해 유모차로부터 1200만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수수하고 선모차 등으로부터 분양 관련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 /연합뉴스

## 사채업자에 금품받은 檢 수사관 석방

사채업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광주일보 9월5일자 6면) 광주지검 순천지청 7급 수사관 김모(42)씨가 구속직부심으로 석방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판사 최영남)는 지난 12일 김씨가 신청한 구속직부심에서 도주 우려가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0만원의 보증보험증권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경찰 간부와 불법사채업을 해온 최대(40)씨로부터 4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됐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주류서비스**  
-성인1인당, 평일방문 고객만-  
맥주 or 소주 1병  
와인 or 생맥주 1잔 택1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24시 유·스퀘어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

**절반만 결제해도 여행가능**

목돈없이 떠나는~ 내맘대로 여행. 2012상반기 베스트 히트상품

해외여행 1000만명 시대 목돈이 없어 여행을 망설이신다면 여기 후불제투어 여행적금을 적극 이용하세요. 가족단위, 신혼, 단체, 직장, 성지순례, 골프 목돈없이 계획대로 여행갈수 있습니다.

**■ 후불제투어 특징**

- ① 후불제여행은 매월 일정 금액을 6개월 납입후 여행을 다녀온 후 여행잔금을 매월 일정금액 나머지 금액만큼 납부하는 획기적인 후불제여행 시스템입니다.
- ② 하나투어·모두투어 원하는 여행상품을 마음대로!
- ③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1인1구좌에 한함)
- ④ 여행금액을 다 지불하고 가는 여행이 아니므로 최상의 고객만족을 실현시켜드립니다.
- ⑤ 만기시 100% 환급가능합니다.

**책임감 있는 진행으로 인한 스트레스 NO!!**

회원가입 월 회비 적립금 최대 360만원까지	월 회비 금액 40,000원 60,000원 120,000원	회비선택하신후 6개월 적립후 여행가능	상품 선택후 고객센터예약	적립금액+지원금액 목돈 없이 여행	여행후 잔금적립후 계약만료
--------------------------	----------------------------------	----------------------	---------------	--------------------	----------------

신뢰의 1위기업 후불제여행사, 후불제 여행만의 신뢰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직접 경험 해보세요.

**(주) 후불제투어 www.hubuljetour.co.kr**  
회원가입 및 상담문의 1577-5978

**지사/영업직모집**  
■ 퇴직자, 주부사원, 일반, 재택근무  
■ 지사모집 : 소지본 무경력, 여행사 운영가능합니다. (법인설립비용없음)

\* 고객의 회비는 공영위 할부거래법 적용으로 지정은행에서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공영위 할부거래법 2010년 9월 18일 법 시행